최근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오 세 진 (ohsejin@kdb.co.kr)

◆ '19.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△0.4%를 기록함에 따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나, 이는 석유류(△5.6%)와 농축수산물(△8.2%)의 가격하락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

◆ 저물가 지속시 생산활동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, 디플레이션 여부에 대한 논쟁 보다는 저물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

□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'19.9월 마이너스(△0.4%)를 보인데 이어, 10월에는 0.0%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확대

* 디플레이션이란 종합적인 물가 수준의 하락이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하며, 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다시 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

○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가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향후 디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한 저성장·저물가 지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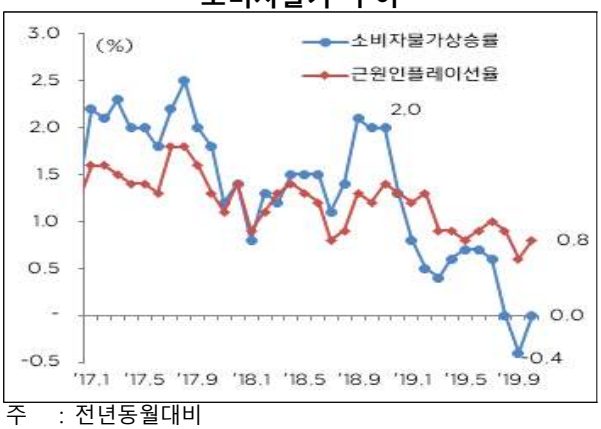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'19.9월 △0.4%를 기록한 이후 10월에는 0.0%를 보였으며,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둔화

* 근원인플레이션율(전년동월비) : 1.0%(7월) → 0.9%(8월) → 0.6%(9월) → 0.8%(10월)

○ 소비자물가 하락 요인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의 급락과 공업제품의 가격 하락에 주로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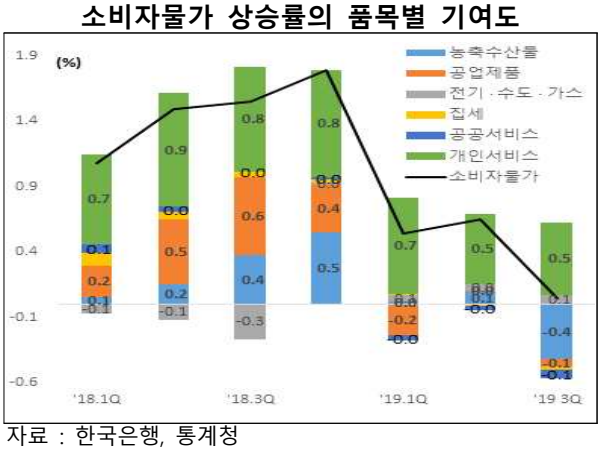
- '18.3분기 0.4%p를 보였던 농축수산물의 기여도는 '19.3분기 △0.4p%로 하락하였으며, 공업제품의 기여도 역시 동기간 0.6%p에서 △0.1%p로 하락

소비자물가 추이



주 : 전년동월대비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

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품목별 기여도


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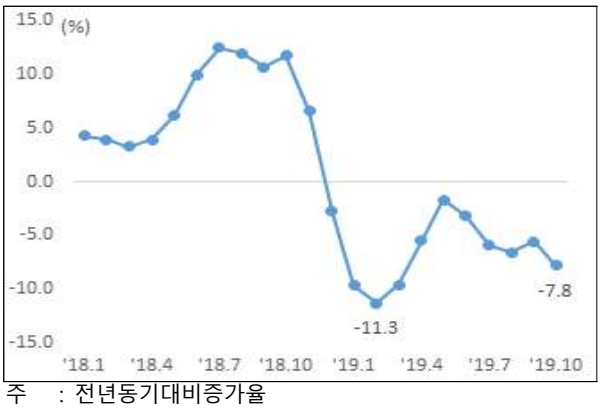
□ 최근 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급락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, 현상황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

○ 공업제품의 가격하락은 석유류 가격의 급락에 기인한 것으로서, 근원인플레이션율의 하위 항목 가운데 자동차 등 내구재, 의약품, 가공식품 등 주요 공업제품의 물가는 상승세를 기록

-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의 기여도는 '19.10월 중 0.28%p로 전년동월(0.09%p)에 비해 크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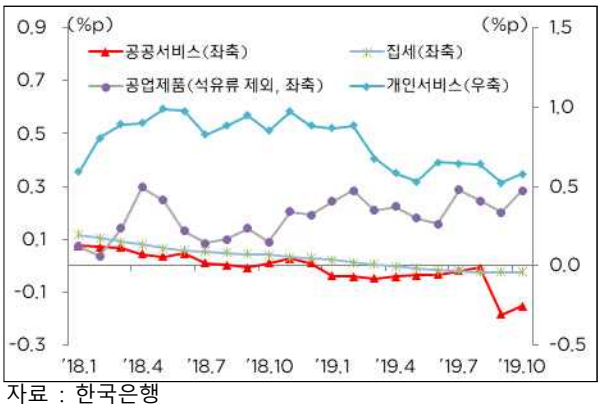
○ 근원인플레이션율 둔화는 정부의 복지정책(무상교육 확대 등) 강화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, 경제 전반의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

석유류 물가지수 상승률



주 : 전년동기대비증가율
자료 : 한국은행

근원인플레이션의 품목별 기여도



자료 : 한국은행

□ 디플레이션 여부에 대한 논쟁 보다는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물가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

○ 우리나라는 '13년(1.3%) 이후 최근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 1%대의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으며, 경제성장 둔화, 온라인 판매 증가 등이 저물가 원인으로 단편적으로 거론되고 있음

○ 장기간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 생산부문의 향후 기대이익 감소로 생산활동이 약화될 수 있어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물가 상승이 중요

- 경제·산업·인구구조 변화 등 저물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소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, 근로자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 모색 필요